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6.25.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1	2	11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최은수,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박세진, 안호림, 임태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11	-	-	2	13	-	13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3	-	-	11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속초 아동 학대혐의 사건은 초등학교 8세, 9세 아동에게 교장이 목덜미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이 아동들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 시키는 등, 체벌을 가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경찰에 교장을 신고한 사례로, 이후 경찰과 검찰이 초교교장에게 ‘혐의없음’의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이에 부모는 서울고등법원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학교/학부모 간 법적 다툼은 갈등이 최고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상대에게 폭력이라고 인식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학교 훈육에 대한 상호 불신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가 내 자녀만 보호하려는 맹목적 신념도 문제이지만, 학교 훈육도 학부모가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즉 학부모와 학교간 신뢰구축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문제행동 검진목표 작성과 영상기록 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과정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단독] "초등생이라 걱정 안했는데"...학교 폭력 "고통" 수정 2024-07-01 14:55:56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 진행 <26.5월 조치>	‘26.4월
기타	도요타처럼 협력기업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 혼자 오롯이 성과를 독점하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뤘더라면 성과급을 두고 경영자와 근로자간 이전투구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영역이익률·기술투자비·복지 등 양극화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K컬처의 세계적 확산, 반도체 호황, 방산업체들의 활약 등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과를 어느 한쪽이 독식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과창출에 기여한 모든 경제주체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병수위원)	시가 바꾸는 도시..."일상에서 변화 체감할 것" 최다훈 기자 입력 2026-07-01 09:05:31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 진행 <26.6월 조치>	‘26.5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위원별 상이)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대운변호사	-	18.7.1.~26.6.30
안지연	1989.06.27	(현)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	23.02.01~27.01.31
김경아	1977.04.26	(현)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	26.04.01~28.03.31
김정원	1993.03.07	(현)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	25.09.01~27.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6. 01. 01.~ '26. 12. 31.)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선임기간)
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25.1.1~'26.12.31
부위원장	김광석	현)충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25.1.1~'26.12.31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25.1.1~'26.12.31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25.1.1~'26.12.31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25.1.1~'26.12.31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25.1.1~'26.12.31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25.1.1~'26.12.31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 학회	문화 단체	'25.1.1~'26.12.31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25.1.1~'26.12.31
위원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LG헬로비전 방송채널심의위원	한국방송학회	언론 단체	'26.1.1~'26.12.31
위원변동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2. 산업뉴스가 강조 -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방송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 뉴스를 올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에는 ‘경제’ 코너만 설정돼 있어, 정부 부처와 협회 등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업 기사의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 시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섹션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0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430회 : 그들의 흔적, 모두의 역사 김효섭 수정 2026-06-07 20:00:05 먼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 부친께서 6.25참전 용사로 유족의 심정으로 매우 의미깊게 시청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매우 시의적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첫째. 고려 대몽항쟁, 조선 임진왜란, 현대의 6·25·월남전까지 프로그램에 언급하다 보니, 전반부 고전 역사에서 후반부 현대사 전시관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조선 시대와 6·25 전쟁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남해 지역의 정서나, 대대로 이어져 온 남해 사람들의 호국 DNA(예: 남해의 의병 활동 등)를 1~2분 정도 브릿지 자막이나 내레이션으로 보강했다면	먼저 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구성에 공감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취지를 살릴 만한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전쟁의 무서움 혹은 근현대사에 대한 거대 담론 대신 작지만 의미 있는 소재 발굴에 집중했습니다. 때마침 남해에 6·25·월남전 흔적 전시관이 지난해말 개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관련 공간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400여명의 참전용사 하나하나가 소중한 물품과 사연 중 눈에 띄는 이들을 중심으로 호국의 의미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원래 남해지역민들을 위한 곳으로 계획했으나 관광객 찾는 서울 거주 참전용사가 취지에 공감해 참가한 특별한 인연, 동시대 전쟁에 참가한 다른 지역용사들의 방문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추억 혹은 흔적에 머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시대적 흐름 전개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방송 마지막 부분에 '6·25·월남전 흔적전시관'을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소개하며 "당신에게 호국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이 뜻깊은 공간이 남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반 관람객들이 어떻게 방문하거나 참여(유품 기증 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인포그래픽이나 하단 자막)가 아쉬웠습니다. 방송을 보고 감동 받은 시청자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공익적 정보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억해야 할 흔적과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사라질 뻔했던 '개인의 흔적'을 '모두의 역사'로 승화시킨 기획 의도가 명확하고 연출 또한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제작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신 제작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광석 부위원장)	무는 게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육 공간으로써 모습은 사전 섭외가 아닌 현장에서 확인한 뜻밖의 소득이었습니다. 촬영 이후 이곳이 국가 현충시설로 신규 지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져 제작진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시관의 위치와 관람 방법, 유품 기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의견 역시 의미있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톤을 정보 전달보다 감정의 선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 정보 전달에 있어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과거 역사로 넘어 가는 부분에 있어 아쉬움은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작 일정상 고려와 조선시대, 남해가 지닌 호국보훈의 가치를 풀어냄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호국과 관련 제작이 있을 경우 이 부분만 따로 충분히 제작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공익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	1. '연합뉴스tv 실시간 온에어'에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시청 일자: 6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연합뉴스tv실시간 라이브'를 클릭하여 뉴스시청을 하려고 하자 첫 화면은 아래와 같이 등장하였습니다. 전교조 4명 해직교사 복직 채용기사를 시청하는 과정에 시청 중인 뉴스는 2019년 기사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시간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더 시청을 하면서 실시간 뉴스의 등장을 기다려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 뉴스는 1일 전 뉴스였습니다. 당시 컴퓨터 화면에 보여진 사진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로 조치하여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 하겠습니다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경화 위원)				
	"애들 끼니를 제대로 못챙겨서..." 엄마가 큰 손이 된 이유 [다다를 인터뷰] 김종성 기자 입력 2026-06-05 17:00:12 2. 애들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서, 엄마 손이 큰 이유 (다다를 인터뷰) : 시청일시(6월 5일,금) 순천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행위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부자는 기부행위를 다양하게 넓히고 있고, 도시락수혜자들의 감사 편지, 기부자는 자녀에게 기부습관을 키워주고, 자녀는 어머니의 선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 등의 다소 평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이번 다다를인터뷰는 저에게 인터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함을 경험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은근한 냉소, 수혜자들이 보여주는 회피성 반응 등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한 영향력의 가치가 훼손되는 우려를 낳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추후 기사에서는 선한 영향력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 기부수혜자와 기부제공자들이 경험하는 실질적 현실을 반영한 질문 등도 함께 다루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라는 사회적 인식 조성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실질적인 결식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 같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또 비슷한 주제를 다룰 기회가 생긴다면 대중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에 건강한 기부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		
보도	(이경화 위원) (경제면 : 초등생 인기 간식 점검했더니..."세균 검출·당류 과다") - 한지이기자(2026-06-09 12:00:05)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인기	유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간식 20종인 마라맛 간식류 10종, 캔디류, 혼합음료 10종(제조국:중국)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마라맛 간식 제품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돼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단단한 젤리를無理하게 깨물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류와 나트륨 함량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판매점(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계당국인 식약처에서도 안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안전한 어린이 간식 섭취를 위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하여 특히,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간식으로 어린이들을 현혹하는 신유형 수입 간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안전한 어린이 식품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순 위원)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때 이른 폭염주의보 무더위 대응 어떻게? 지난 5월 온열환자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올 여름은 슈퍼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폭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과 택배기사, 건설현장 근로자 등 실외근로자들이지만 이들이 폭염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폭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부터 폭염 자체를 다루는 기획은 특성상 기상재난보도팀이 주관하게 되는데 5월부터 슈퍼 엘니뇨 등 폭염의 원인을 다루는 리포트를 2~3차례 다룬 관계로 이번 프리즘의 주제는 폭염 자체보다 폭염이 일찍 온 점과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기업 등의 대응을 다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폭염의 원인과 파장 등은 앞으로 여름철 기간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한편 동 프로그램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냉방가전제품, 냉감침구 &#8228;보양식 할인행사에 나선 유통업체들의 폭염 마케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폭염에 대한 폭염 발생 원인, 폭염 피해 취약계층, 폭염을 대비한 기업 마케팅전략이 동일 프로그램에서 함께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폭염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 내용보다는 폭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및 온열환자 응급처치 방안 등 폭염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프로그램 제목과도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수 위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다시 한번 "대-한민국!"...월드컵 열기는 예전과 달라 전 세계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선 첫 경기를 승리를 장식하며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월드컵 경기에 대한 열기가 우리나라 경기가 오전 시간대로 배정되어 이전 월드컵의 저녁 경기와 달리 치맥을 하면서 응원하던 특수가 사라진 점,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적 시청권 침해 등을 월드컵 열기의 감소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전 경기 배정이라든지, 중계독점권 등이 월드컵 열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공감하지만 개최국의 경우 인기가 없던 종목도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상례이며 국내에서 개최된 2002년 열기와 비교한 점에는 다소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열기가 예전과 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의 제재로 인해 정몽규 회장의 월드컵 이후 사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월드컵 결산 기획보도 등에서 해당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지 않은 이유에는 이란전쟁,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감독 선임 논란 등 독단적 축구협회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지게 했다는 평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월드컵 열기 하락의 원인으로 이 정도 함께 다뤄졌으면 더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수 위원)				
기타	[연합뉴스TV 스페셜] 430회 : 그들의 흔적, 모두의 역사 경남 '남해'라는 아름다운 관광지 이면에 숨겨진 호국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단순한 여행지 소개를 넘어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그리고 6·25전쟁과 월남전까지 남해라는 공간에 쌓인 희생의 역사를 되짚으며 호국의 달인 6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해에 위치한 6·25·월남전 흔적전시관을 조명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참전용사 개개인의 청춘과 땀방울이 뻗 소박한 흔적들을 통해 숭고한 자부심을 끌어내고,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남해를 단순히 바다가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닌, 역사가 흐르는 '호국의 땅'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지역의 새로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시청자에게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부의 이순신 장군 흔적(과거의 역사)과 후반부 흔적전시관(현대사의 기록)을 '남해'와 '호국'이라는 키워드로 묶었으나, 두 주제를 잇는 내러티브나 화면 전환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 프로그램이 두 개의 짧은 코너로 나뉜 듯한 단절감을 주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안서연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6·25·월남전 흔적전시관의 경우 지난해말 개관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맞물려 남해의 작은 공간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제작에 임했습니다. 평범한 이들의 역사가 비록 거창하지 않더라도 전쟁이란 소용돌이 속 개인의 삶들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해를 관광명소를 넘어 호국의 공간으로서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고려,조선)와 현대사 부분의 간극을 호국이라는 키워드로만 풀어내기엔 제작 여건 상 쉽지 않았습니다. 시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구현해 보완해 보려 했습니다만 단절감에 대한 지적은 제작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은 흔히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촬영 중 남해의 대장군지 역시 대몽항쟁 거점으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빠기가 아쉬웠던 상황에 프로그램 시간이 제한돼 남해의 과거사는 짧게 다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비슷한 소재로 제작할 경우 이를 보완해 호국 역사를 이어온 공간, 남해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野 "선거 무효·재선거 해야"...與 "일고의 가치없다" 장보경 기자 입력 2026-06-04 03:35:1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04033510GZ6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선거 당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잠실7동 투표소의 팽팽한 대치 상황과 시민들의 항의, 그리고 선관위의 '50% 미만 인쇄 지침' 정황을 현장에서 밀착 취재해 생생히 전한 보도는 뉴스 채널로서의 기동성과 저력을 증명한 모범적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이어진 후속 보도는 현장의 열기를 차분한 심층 추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환해 버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관위의 기이한 행정 오류의 구체적 경위를 밝히기보다, 재선거 제안 같은 정치권의 정쟁을 부각하는 데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책임을 묻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과연 선관위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동이 누적되어서 나타난 결과인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극소수가 믿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사태인지...입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TV의 위 기사는 각 정치 주체들의 반응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는 전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취재가 한계가 있다면 선관위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기사입니다. 단순한 중계식 정쟁 보도를 넘어 사태의 제도적 모순과 의혹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드는 추적 보도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말 그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는 사태 발생 이후 보도뿐 아니라 대담과 심층기획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 보도에 있어 24시간 보도채널로서 시청자의 눈높이와 시각에 맞춘 깊이있는 뉴스 전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강화할 때, 뉴스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호림 위원)				
보도	딥페이크 넘어 범죄 자동화…미래 치안의 새 위협 송고2026-06-14 08:52 차승은기자 이 기획보도는 범죄 자동화, 사보타주, 합성 신분 등 고도화된 미래의 치안 위협을 글로벌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치안 안보 논의를 한 단계 더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단순한 개인 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거시적 범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충분히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매우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는데 이를 1회성 기사로 보도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편에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나아가 생소한 기술 개념에 대한 시각적 설명이 부족하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남고, 치안 당국의 대응책 또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추상적인 서술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라인이나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등 실질적인 대안까지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대중화에 따른 부작용인만큼, 기술, 법, 산업 관계자들의 보다 다양한 진단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 시청자들도 보다 쉽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진화하는 범죄 속도에 맞춰 사회 안전망과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6월 13일부터 매주 토,일 1편씩 ‘AI 시대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을 조명하는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는 ‘치안영웅’ 시리즈입니다. [13일/치안영웅①/윤형섭] 딥보이스부터 딥페이크까지…AI가 바꾼 범죄 실태 [14일/치안영웅②/차승은] 딥페이크 넘어 범죄 자동화…미래 치안의 새 위협 --> 해당 주에 이렇게 두 개 기사가 시리즈로 방영됐습니다. [20일/치안영웅③/신선재] 삭제부터 검거까지…AI 성범죄와 싸우는 경찰 어벤저스 [21일/치안영웅④/송채은] AI 순찰차부터 스마트헬멧까지…미래 치안의 실험실 --> 차주에는 이렇게 2개 리포트가 후속물로 방영됐습니다.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국가 방어 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림 위원)				
보도	기본소득 도입 급물살...막대한 재원 마련은 ‘숙제’ (단독보도) [출발600] 2026.6.5. 06:17 문형민 기자 ‘누구나 정기 현금 지급’..기본소득 도입이 가시화 된다는 내용을 연합뉴스TV에서 단독 보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이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때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찬반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 논리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이 형성되고,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여 내수 활성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AI·자동화 시대를 대비해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응한 최소한이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반대 논리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증세나 국가채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복지 효율성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 의욕 저하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의 철학 자체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원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절차를 지켜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전에 연합뉴스TV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명희 위원)				
보도	[뉴스특보]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 2026-06-04 09:43:35 먼저 지방선거 관련 특보는 선거 당일과 개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뉴스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을 잘 보여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순한 개표 현황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선거 결과의 함의와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선거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패널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균형 있는 패널 구성을 시도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널의 경우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정치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 있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선거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직 개표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일부 패널들이 사실상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패널이 모두 확정된 결과를 전제로 발언하자 진행을 맡은 앵커가 아직 개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즉시 언급하며 시	패널의 경우는 저희가 여야로 나눠서 성향이나 스타일 등 어울리는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서 의견 개진의 정도차가 있는데요, 과하게 발언하거나 지나칠 경우, 팩트가 다른 부분 등은 진행부 사인을 받고 앵커들이 중간에 개입을 하거나 정정해 전달하는 등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담이 좀 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파트에서 좀 더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조연 감사합니다.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청자들에게 상황을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뉴스 진행자로서 균형감과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보도	[무조건간다] 대형병원 교수 믿고 수술 받았는데...'무면허 의료?' 송고2026-06-13 11:12 박현우기자 이번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낸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대형병원이라는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수술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보도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공익 제보와 관계자 인터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시청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생의 의료행위 범위, 지도교수 임회 여부, 동시 수술 관행 등 일반 시청자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쉽게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법상 허용되는 연수와 실제 수술 현장에서의 행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 측면에서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공익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는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병원 내부에서 개선되지 못한 사안이 외부 수사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익 제보의 중요성과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콘텐츠는 주말에 방영된 3분짜리 리포트 형식인데, <무조건간다> 본방송이었던 12일 방송분에선 취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총 6분 분량으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보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분 유튜브 조회수도 50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 관심도 높았습니다. 방송 직후엔 복지부도 보도자료 통해 ‘실태 점검하고 관리 감독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반향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며,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공들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함께 대형 의료기관 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환기시킨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는 수술실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이 이러한 사안을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보도는 대형병원이라는 신뢰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안전 문제를 시의성 있게 제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환자 보호라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보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임태순 위원)				